

■ 광주의 미래 '일자리 지도'가 바뀐다

일터는 북구로... 상권은 서구·광산구로

광주지역 '일자리 지도'가 바뀌고 있다. 지난 10년간 광주의 일자리 변화상은 동구와 남구의 쇠퇴 속에 서구와 광산구의 약진으로 요약된다.

과거 광주의 중심지였던 동구가 시·도청 이전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급감한 반면 서구와 광산구는 상무·첨단지구 등을 중심으로 '일터'가 꾸준히 늘고 있다. 북구는 광주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서구와 광산구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본사가 1996년과 2005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통해 최근 10년간 광주의 지자체별 일자리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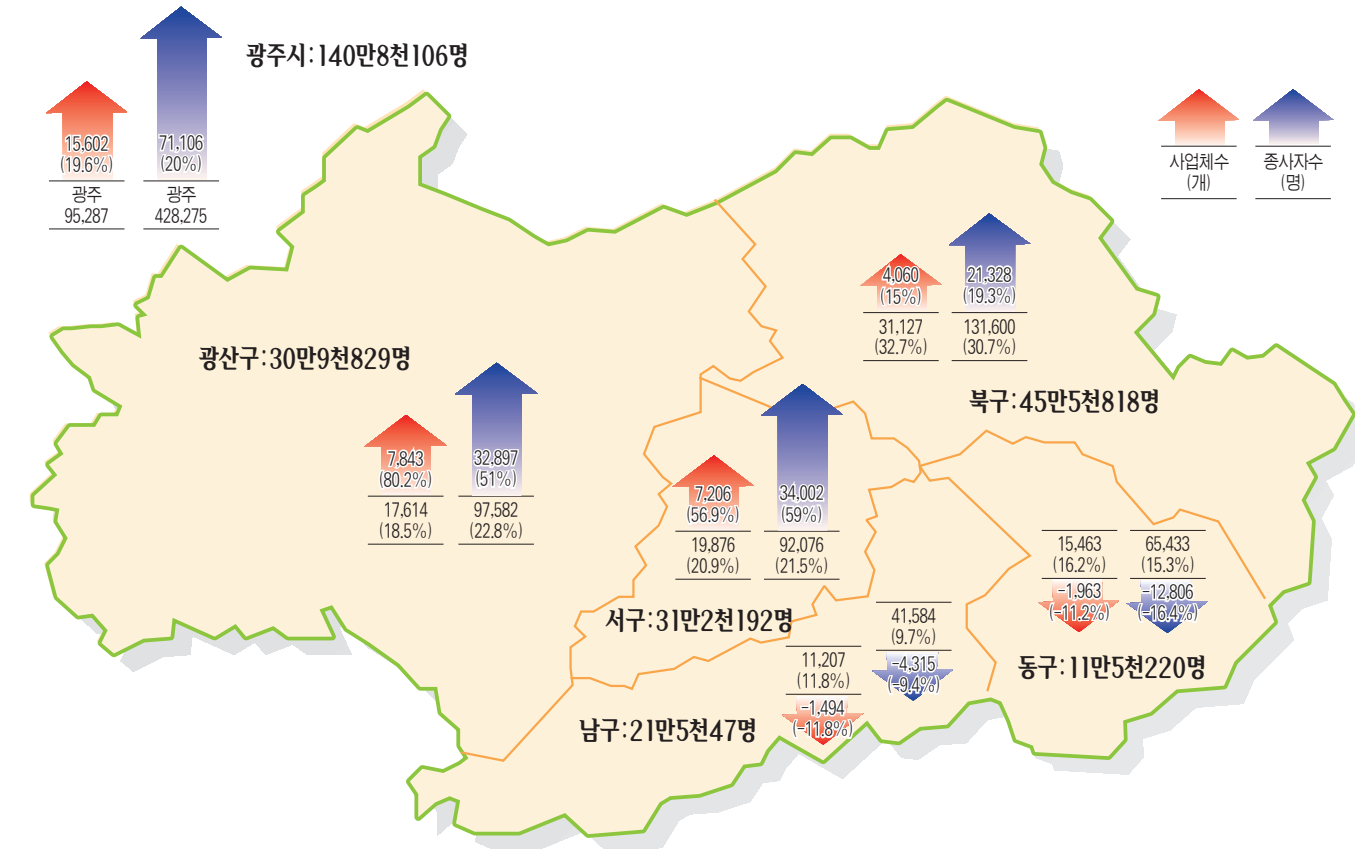
특히 이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블루슈머(Bluesumer)'의 유망지역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블루슈머'는 기업인이 주목해야 할 소비자 집단으로, 미래 일자리 예측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광주 '일터' 북구, 서구, 광산구 순=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광주의 총 사업체는 9만5천287개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1996년(7만9천635개)보다 19.6% (1만5천602개) 늘어난 것이다.

구별 사업체 비중은 북구가 전체의 32.7% (3만1천127개)로 가장 높았으며, ▲서구 21% (1만9천876개) ▲광산구 18.5% (1만7천614개) ▲동구 16.2% (1만5천463개) ▲남구 11.8% (1만1천207개)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동구와 남구는 10년간 사업체가 각각 11.2% (1천963개), 11.8% (1천494개) 감소했다. 시·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사업체 10곳중 1곳 이상이 문을 닫거나 타 지역으로 옮겨간 것이다.

반면 북구는 10년 새 4천606개의 사업체가 늘어났으며, 서구도 같은 기간 7천206개가



증가하면서 신흥 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특히 광산구는 같은 기간 7천843개가 늘어나 두배 가량 '일터'가 많아졌다.

이같은 상황은 구별 종사자 현황에서도 두드러진다. 광주는 10년간 종사자 수가 20% (7만1천106명) 늘어난 가운데 서구와 광산구가 각각 59% (3만4천2명), 51% (3만

2천897명) 증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19.3% (2만1천328명) 늘었다. 반면 동구와 남구는 각각 16.4% (1만2천806명), 9.4% (4천315명) 감소했다.

현재 구별 종사자 비중은 북구가 전체의 30.7% (13만1천600명)로 가장 높고, ▲광산구 22.8% (9만7천582명) ▲서구 21.5% (9만

2천76명) ▲동구 15.3% (6만5천433명) ▲남구 9.7% (4만1천584명) 등이다.

◇가장 큰 시장은 북구=지난 10년간 광주의 일자리 변화는 향후 유망업종으로 꼽히는 '블루슈머(Bluesumer)'사업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북구가 풍부한 인구와 일자리를 바탕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한 가운데

광산구와 서구 등이 빠른 속도로 상권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블루슈머'란 '블루오션(BlueOcean)'을 창출하는 소비자를 지칭하는 말로, ▲이동족 ▲무서워하는 여성 ▲20대 아침 사양족 ▲피곤한 직장인 ▲30·50 일하는 엄마 ▲살찐 한국인 등이 6대 '블루슈머'로 꼽힌다.

최근 통계청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류했다. 북구는 30~50세 기혼여성이 6만5천67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4만9천36명) ▲서구(4만8천270명) ▲남구(2만8천647명) ▲동구(1만2천83명) 등의 순이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방문·보안시장 진출도 북구가 가장 유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의 15~65세 여성인구는 16만8천125명으로

'블루슈머' 사업은 북구가 가장 유리

〈블루오션 창출 소비자〉

동구, 독신여성·20대 특화산업 유망

시작한 '블루슈머GIS(지리정보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광주에서는 북구가 이동족과 아침을 거르는 20대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통근·통학을 하는 이동족이 23만5천160명에 달했다. 이동족이 많을수록 DMB TV, 휴대용 게임기 등 이동형 엔터테인먼트 상품의 인기가 높다는 점에서 관련 업종 창업이 유망하다. 광산구도 이동족이 15만1천711명에 달하면서 구민의 64.3%를 차지했다. 이는 광주 평균(61%)은 물론 ▲북구(61.7%) ▲서구(61.1%) ▲남구(53%) ▲동구(53.5%) 등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서구·광산구, 사업 유망지 급부상='워킹맘(WorkingMom)'을 겨냥한 사업은 북구를 비롯, 광산구와 서구 등이 유망지로

로, 광주 전체의 33%에 달했다. 이어 ▲서구(11만1천867명) ▲광산구(10만653명) ▲남구(8만393명) 등의 순이었다. 동구의 경우 1인 여성가구의 비중이 28%에 달하면서 치안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동구는 또 20대 아침 사양족을 겨냥한 사업이 유망업종으로 꼽혔다. 동구는 20대가 2만8천40명에 그쳤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4%에 달했다. 이는 광주 평균(18%)은 물론 남구(18.8%), 북구(18.3%) 등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별 20대 인구는 ▲북구(8만4천341명) ▲서구(5만1천300명) ▲광산구(4만3천513명) ▲남구(4만294명) 등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4/20(금)~22(일) 8시 30분까지 연장영업, 4/23(월) 정상영업합니다

LifeStylist 현대백화점 HYUNDAI

「르까프」&아웃도어 Spring Festival

기간 4/20(금)~4/24(화) 장소 8층 테마플라자



현대 Only 「르까프」 LECAP Surprise Special invitation
 면티/트레이닝복(하) 각 15,000원
 성인화/트레이닝복(상)/등산조끼 각 20,000원
 점퍼 30,000원



현대 Only
 노스페이스 컬렉스티 39,000원
 등산점퍼/기능성바지 114,000/90,000원
 버그하우스 기능성티 24,000원
 등산바지/고어텍스점퍼 72,000/200,000원
 블랙야크 기능성조끼/기능성바지 40,000/56,000원
 기능성재킷 60,000/100,000원
 라푸마 기능성티 24,000원
 등산점퍼/배낭 95,400/42,000원
 FILA 운동화/가방 36,000/30,100원
 K2 기능성티 49,000원
 스트래치 재킷 83,000원

8층 가정용품 새단장 오픈 축하 8층 가전·가구 / 1층 명품

구매고객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100만원이상 구매시 5만원 현대상품권
200만원이상 구매시 10만원 현대상품권
300만원이상 구매시 15만원 현대상품권
1,000만원이상 구매시 50만원 현대상품권
500만원이상 구매시 25만원 현대상품권

현금+카드+상품권 합산가능
 기간 : 4/20(금)~4/29(일), 10일간 장소 : 8층 시은품 증정대스크
 증정방법 : 동일한 상품군에서만 영수증 합산이 가능합니다. 가전 제품은 구매금액의 50%만 인정하며, 일부품목은 제외됩니다. 당일 본인 영수증에 한하며, 한 개의 영수증을 분할하여 증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행사와 중복하여 증정하지 않으며, 합산한 영수증 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 되었을때 해당 상품권을 드립니다.



싱그러운 자연이 나를 부른다

초록빛으로 쏟아 내리는 봄 별과 따사로운 대지가 부르는 4월, 현대백화점에서 싱그러운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겨보십시오.